

‘공돈 욕심’에 주부·대학생 100명 보험사기

사무장병원·보험설계사, 공짜 성형수술 미끼 환자 유치 “등산 중 다쳤다”며 진료기록 조작 보험금 10억대 타내 서부경찰 무더기 적발...광주 의료생협 49곳 수사 확대

광주·전남지역 주부와 대학생 100여명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앞으로 130여명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어서 가담자는 200여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의료생활협동조합 형태의 ‘불법 사무장 병원’<광주일보 4월24일 6면>에서 환자 브로커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들의 ‘공짜 성형수술’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형수술이나 피부수술을 받고서 병원 운영자와 짜고 등산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수법이었다.

◇불법 의료생협 첫 적발...수사 확대=광주서부경찰은 17일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N병원 운영자 오모(33)씨를 구속하고, 친구이자 M병원 운영자인 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한 전·현직 보험설계사 20명과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환자 102명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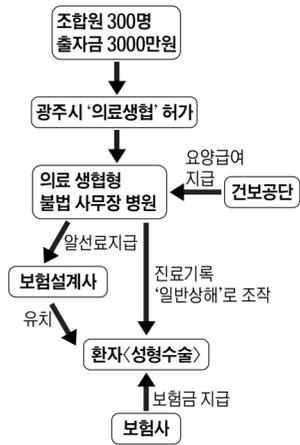
들 병원을 이용한 환자 중 혐의가 짙은 13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오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 기록을 조작, 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로부터 1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병원 사무장 출신인 오씨 등은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조건인 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을 맞추기 위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허위로 꾸미고, 조합원이 출자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병원을 설립·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씨는 지난 2013년 11월 의료재단(법인) 형태의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지만, 또 다시 가짜 조합원을 모집해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든 후 생협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파고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04년 이후 광주지역에 개설된 49곳의 의료생활협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짧은 기간...애 연루자 많았나=경찰

■ 의료생활협 형태 불법사무장 병원 개요



은 불과 1년 사이 250여명에 달하는 보험사기 연루자가 생긴 배경을 오씨와 박씨의 이력에서 찾고 있다.

구속된 오씨의 경우 의료재단 형태의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경력이 있다. 오씨와 박씨는 광주 모 대학의 의학 관련 전공학과 출신으로, 병원 사무장을 지내 보험금 지급과 환자 유치 등 병원 운영 사정

▲ 의료생활협동조합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의료생활협동조합 형태의 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의료생활협 의료기관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100%와 비조합원(일반인) 50%의 진료가 허용된다. 조합원이 300명이거나 조합원 300명과 비조합원 150명 등 총 450명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에 빠졌다.

오씨 등에게 알선료를 받고서 보험설계사들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도 보험사기 근원 양산에 한몫했다. 보험설계사들은 의료실비보험금으로 성형수술 등을 받게 해주겠다고 주부, 대학생, 회사원 등 환자를 적극 유치했다.

주부 등 환자들도 공짜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다 병원 측이 적극 권유하면서 가담자가 급속도로 늘게 됐다. 성형수술·피부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오씨 등 병원 운영자와 직원들이 조작한 진료기록으로 상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타내고서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큰 코 다친 ‘법정 거짓말’

광주지검, 위증 집중 단속 39명 기소

#1. 술집 여종업원 A씨는 사장의 동업자이자 채무자인 B씨, C씨와 짜고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사장과 손님을 허위로 고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허위 증언하고,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허위 증언했다.

#2. D씨는 지인 E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먼저 귀가했다. 그 후 E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E씨가 처벌될 것을 우려해 D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영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위증 등 법정 거짓말 사범을 집중 단속해 모두 39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모해위증 혐의로, 또 다른 1명은 불법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앞의 사례처럼 합의금을 받으려고 성

폭력 피해를 본 것처럼 사장과 손님을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한 술집 여종업원 A씨는 무고를 제인한 다른 2명과 함께 재판에 받게 됐다.

또 불법 게임장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실제 업주가 아닌 바지사장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추적 끝에 실제 업주를 구속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지인을 대신해 운전했다고 허위 증언과 뺑소니 사고를 낸 차량 조수석에 탔으면서도 법정에서 ‘모르쇠’ 태도를 보인 사례도 있었다.

박영준 부장검사는 “위증은 사실 관계를 왜곡해 실제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낳는 중대범죄”라며 “남을 음해하려는 경우뿐 아니라 교사범까지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청와대 폭파’ 장난전화 348만원 배상 판결

경찰력 낭비 책임 물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경찰에 장난 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책임으로 수백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이지민 판사는 경찰이 장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훌륭한 경찰관들에게 348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3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친구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라고 말했고, 경찰은 경찰관 41명을 청와대 인근으로 출동시켜 약 5시간에 걸쳐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장씨를 붙잡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41명에 대한 위자료 700만원과 경찰차 16대의 차량 유류비 9800원을 더해 700만9800원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산 데 이어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연합뉴스



장애인 복지예산 공개 촉구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7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복지예산 공개와 소통창구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트렁크 살인’ 용의자 범행 8일만에 검거

서울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김일곤(48)이 범행 8일 만인 17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성동경찰은 주모(여·35)씨를 남치·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공개수배한 김씨를 이날 오전 11시5분께 성동구에서

원 흥기단동범이 김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1km 떨어진 성동서에서 건너편 인도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투싼 차량에 타려던 주씨를 덮쳐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딸 때려 숨지게하고 살인죄 무죄 받은 30대 엄마

항소심서 상해치사죄 적용 징역 5년 선고

생후 열 달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도 벌리 적용 논란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살인 무죄 판단이 나올 때를 대비해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적용한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권유에도 살인죄만 고집하며 상해치사죄를 예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이 탓에 살인죄 인정 여부만 검토하게 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맞지만,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석방되면서 검찰 벌리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치사는 피고인도 인정했다”며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어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딸의 사망 이후 남편도 스스로 생을 마감해 딸과 남편의 죽음으로 김씨가 겪을 고통은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4시께 나주시 자신의 집내 잠을 자지 않고 우는 딸을 달래다가 10분간 주먹으로 배 등을 수차례 때려 딸이 간 파열에 의한 혈복강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목적자 진술로 외국인 용의자 추적...잡고보니 전과 16명 한국인

○...외국인 노동자 품의 인상착의로 범행 장면을 본 목격자는 물론 경찰마저 혼란에 빠뜨린 30대 절도범이 범행 장소를 다시 찾았다가 떨어.

○...1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절도 등 전과 16명인 이모(30)씨는 지난 3일 밤 11시에 남구 방림동 상가 건물 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거처에 들어가 현금 5만원, 외국

인등록증 등 63만원 상당의 금품을 탈취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범행을 마치고 나온 것을 봤다. 용의자는 외국인이다”라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외국인 건설 노동자를 상대로 탐문을 벌였지만 이렇다할 소득을 못 거둬 수사가 장기화될 듯했으나, 그가 또다시 도둑질을 하려고 범행 현장 인근 주택가에 나타나자 재판 리 이씨를 검거.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수익성 상가 매매

7층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2~5층 (사우나, 주택)
-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보 2억, 용 6억) 매가 14억 5천

2층 상가 매매 <나주 삼영동>

(영산중고교,영강초교 정문앞)
1층 6칸 (올임대) 2층 2칸 (사무실,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보2천, 용 1억2천)
매가 2억 9천

3층 상가 매매 (수안동 4층중 3층)

월수익 180만
(보3천,용2억5천) 실투자금액 →1억
매가 3억 7천

010-7384-7800 / 010-6670-9800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매매(오피스텔)

- 상무지구 정영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보1천, 월70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연 (용4천)보5백, 월42만 → 매가 8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연 (용5천)보1천, 월50만 → 매가 9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연 (용2천)보3백, 월32만 → 매가 6천만
- 수완지구 3층상가(85평) 신한은행뒷편,모아A,P,T 6,000세대 앞 (용 2억5천)보3천, 월수익 180만 → 매가 3억8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울수리,전망좋은,임대완료 (용5천)보1천, 월60만 → 매가 1억1천만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천역1번출구 3분 (용2천)보3백, 월32만 → 매가 3억8천만
-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1층(40평) (보8백, 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 광양 광영동 상가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보2백, 월25만) → 매가 4천만
- 전남장성 시골주택 매매 장성면 2분! 장성읍 8분! (토지 160평) → 매가 4천5백만

법률 경매

수익성상가(근린상가/구분상상가)

- 서구 치평동 (토15평,건90평)감정가 6억3천5백→최저가 4억4천
- 동구 금동 (토19평,건149평)감정가 5억1천→최저가 9천3백
- 동구 금동 (토18평,건 134평)감정가 4억7천6백→최저가 1억
- 서구 치평동 4층중3층(토 4.2평,건18.6평)감정가 2억9백→최저가9천3백
- 서구 치평동 (토30평,건56평)감정가 3억3천→최저가 1억8천(지하)
- 광산수원(토122평,건78평)감정가16억2천→최저가9억
- 북구신용동(토32평,건48평)감정가4억2백→최저가1억8천
- 서구 치평동(토3평,건13평) 감정가 2억3천3백→ 최저가 1억6천3백

수익성상가(근린주택)

- 북구 두암동 (토60평,건154평)감정가74억→최저가24억8천
- 동구학동 (토138평,건545평)감정가 23억→16억

수익성상가(근린시설, 통건물)

- 북구 누문동(토305평,건238평)감정가 11억7천→8억2천
- 광산구 남산동(토258평,건150평)감정가4억8천→최저가 2억6천8백
- 북구 중흥동 (120평,530평)감정가13억7천→최저가 6억1천5백
- 동구 수기동 (토130평,건320평)감정가 1억7천→최저가 6억
- 서구 농성동 (토 86평,건263평)감정가 5억7천→최저가 4억
- 북구 각화동(토337평,건509평)감정가 22억3천→최저가 22억3천
- 광산구 양암동 (정례식장) (토 516평,건920평) 감정가 36억7천 → 최저가 29억

모델/주유소

- 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토357평,건680평)감정가127억→최저가15억
- 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 (토154평,건419평)감정가 15억→최저가 8억4천
- 북구 두암동(주유소) (토204평,건114평) 감정가 11억9천→최저가 11억 9천

경매 무료 공개강좌

(서울 유명 교수 초빙)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9시

(기본 이론위주)
☆ 1회 무료 모의수강후 등록가능

경매 실전 교육

실전교육듣고 바로 수익 창출 가능

매주 (수요일,토요일)
오전 11시~1시
오후 7시~8시30분

(입찰,임대,매매~개발기획까지)

062-382-5500/010-6832-9700